For 2022 피램의 기출마무리 LEET선별
4주차 해설지

4주차 [1~3]

2015LEET [27~29] 기술 'CPU 인버터' ☆☆☆

> 컴퓨터의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CPU의 '논리 상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을 말한다. 가령, Z = X + Y의 연산을 수행하려면 CPU가 X와 Y에 어떤 값을 차례로 저장한 다음, 이것을 더하고 그 결과를 Z에 저장하는 각각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CPU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특정한 CPU의 논리 상태와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의 진행에 맞도록 CPU의 논리 상태를 변경한다. 이를 위해 CPU는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이것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가 회로도 갖추고 있다. 만약 CPU가 가지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많아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해진다. 따라서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같다면 이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CPU의 역할을 제시하며 지문을 시작하네요. CPU가 무엇을 수행하는 것은 '논리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라 합니다. 항상 하던 대로 'CPU의 논리 상태 변화'를 '화제'로 잡고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가령'과 함께 예시가 등장했습니다. 이 예시가 '논리 상태'에 대해 설명해줄 거예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논리 상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 천천히 독해해봅시다.

수행하고자 하는 연산은 'Z = X + Y' 이네요. 이 연산이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이 되겠네요.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X와 Y에 어떤 값을 '차례로 저장'하고, 그것을 '더하고', 이후 Z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즉, '더하고' '저장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논리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더하는가?'와 '어떻게 저장하는가?'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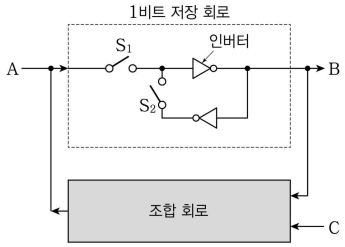
하나의 논리 상태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논리 상태가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맞추어서 CPU의 논리 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이죠.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니까요. 이때 '부가 회로'의 정의가 나옵니다.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CPU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논리 상태를 변경시키면, 그 상태를 저장하고, 변경된 논리 상태에 맞추어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부가 회로'가 없으면 CPU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겠네요. 어떠한 기능에 대응되는 '논리 상태'를 저장하고, 수행시키는 회로니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논리 상태의 개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논리 상태에 하나의 기능이 대응되는데, '논리 상태' 자체가 많아지면 처리할 수 있는 작업도 많아지겠네요! 논리 상태가 하나라면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지만, 논리 상태 개수가 많으면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군요. 여러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처리 속도도 빨라질 거구요. 처리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적게 드는 건 기출에서 많이 본 메커니즘이죠? ㅎㅎ

하이라이트 문장

> 컴퓨터의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CPU의 '논리 상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을 말한다.

첫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모든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CPU라는 '기술의 목적'은 '작업 수행'과 그 작업에 맞게 '논리 상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논리 상태 변경'을 화제로 지문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 논리 상태는 2진수로 표현되는데 논리 함수를 통해 다른 상태로 변환된다. 논리 소자가 연결된 조합 회로는 논리 함수의 기능을 가지는데, 조합 회로는 논리 연산은 가능하지만 논리 상태를 저장할 수는 없다. 어떤 논리 상태를 '저장'한다는 것은 2진수 정보의 시간적 유지를 의미하는데, 외부에서 입력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입력된 정보를 논리 회로 속에 시간적으로 가둘 수 있어야 한다.
>
> 
>
> <그림> 순차 논리 회로
>
> 인버터는 입력이 0일 때 1을, 1일 때 0을 출력하는 논리 소자이다. 〈그림〉의 점선 내부에 표시된 '1비트 저장 회로'를 생각해 보자. 이 회로에서 스위치 S_1은 연결하고 스위치 S_2는 끊은 채로 A에 정보를 입력한다. 그런 다음 S_2를 연결하면 S_1을 끊더라도 S_2를 통하는 ㉠ 피드백 회로에 의해 A에 입력된 정보와 반대되는 값이 지속적으로 B에 출력된다. 따라서 이 회로는 0과 1 중 1개의 논리 상태, 즉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회로가 2개가 있다면 00, 01, 10, 11의 4가지 논리 상태, n개가 있다면 2^n가지의 논리 상태 중 1개를 저장할 수 있다.

드디어 '논리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작되네요. 논리 상태는 2진수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부호화' 지문에서 봤던 0과 1로 이루어진 걸 떠올리면 되겠네요. 논리 상태를 '변환'시키는 개념은 '논리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던 게 '논리 상태 변경'인 만큼, '논리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논리 소자'가 연결된 것이 '조합 회로'이고, 이 조합 회로가 '논리 함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논리 소자들의 연결 = 조합 회로 = 논리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조합 회로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문단에서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저장'도 하나의 '논리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해내는가 살펴봅시다. '저장'이라는 것은 2진수 정보를 시간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2진수가 논리 상태이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저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림과 함께 '인버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보가 쏟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주세요. '논리 상태의 변환'을 통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및 '조합 회로' 등의 개념은 그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어쨌든, '인버터'를 통해서는 '저장'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위에 '저장'의 개념을 알려줬으니까요.

인버터는 '논리 소자'라고 합니다. 0은 1로 만들고, 1은 0으로 만드는 논리 소자인 거죠. 〈논리 소자들의 연결 = 조합 회로〉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죠? '논리 소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조합 회로'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이해해봅시다.

〈그림〉의 1비트 '저장' 회로를 살펴봅시다. '저장'은 하나의 '논리 상태'이고, 이 논리 상태의 변환을 담당하기 위해 '인버터들이 연결 = 논리 소자가 연결'된 '조합 회로'인 '1비트 저장 회로'에 대해 이해해보는 거예요. S_1을 연결한 후 A에 0을 입력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B로 1이 출력될 거예요. 이와 별개로 이 0이 인버터를 지난 직후에 S_2를 닫으면 A로 들어간 0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겠네요.

0 → S_1 → 인버터(1) → 1(B로 출력되는 값) → 인버터(2) → S_2 → 0 → 인버터(1) → 1 → 인버터(2) → S_2 → 0 …

이 경우 인버터(1)에는 계속 0이 입력되고, 1로 바뀐 후에 B로 출력되겠죠? 즉, '논리 상태'의 '시간적 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1만 출력되는 결과가 도출됐으니까요! 만약 이러한 1비트 저장 회로가 2개라면 지문에 서술된 대로 4가지 논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 n개라면 2^n개의 논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1문단 마지막에 서술된 내용이 떠올라야 합니다. '논리 상태의 개수가 많아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1비트 저장 회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적으로 유지되는 이진수의 개수도 많을 거고, 그만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늘어나니, 나타낼 수 있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 처리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요 ㅎㅎ '저장'이라는 '논리 상태'에 대해 이해했으니, 다른 '논리 상태'도 이해해보러 갑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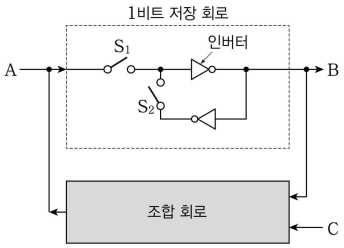
> 어떤 논리 상태를 '저장'한다는 것은 2진수 정보의 시간적 유지를 의미하는데, 외부에서 입력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입력된 정보를 논리 회로 속에 시간적으로 가둘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장'이라는 '논리 상태'를 이해할 것이라는 목적 의식을 세울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인버터' 등의 개념이 생소하더라도 '그래.. 나는 지금 저장이라는 논리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하고 길을 잃지 않았을 거니까요!

> 그렇다면 논리 상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이제 〈그림〉과 같이 1비트 저장 회로와 조합 회로로 구성되는 '순차 논리 회로'를 생각해보자. 이 회로에서 조합 회로는 외부 입력 C와 저장 회로의 출력 B를 다시 입력으로 되받아, 내장된 논리 함수를 통해 논리 상태를 변환하고, 이를 다시 저장 회로의 입력과 연결하는 ㉡피드백 회로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조합 회로가 두 입력이 같을 때는 1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출력한다고 하자. 만일 B에서 1이 출력되고 있을 때 C에 1이 입력된다면 조합 회로는 1을 출력하게된다. 이때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주어 S_2가 열리자마자 S_1 이 닫힌 다음 다시 S_2가 닫히고 S_1이 열리는 일련의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면, 조합 회로의 출력은 저장 회로의 입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B에서 출력되는 값은 0으로 바뀐다. 그런 다음 C의 값을 0으로 바꾸어주면, 일련의 스위치 동작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B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C에 다시 1을 입력하고 일련의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면 B의 출력은 1로 바뀐다. 따라서 C에 주는 입력에 의해 저장 회로가 출력하는 논리 상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논리 상태가 시간적으로 '유지'되는 '저장'에 대해 이해했으니, 이제는 '논리 상태의 변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네요. 궁극적으로 '논리 상태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그림을 꺼내옵니다.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 저희는 여기서 바로 봅시다 ㅎㅎ



〈그림〉 순차 논리 회로

이번에는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순차 논리 회로 = 1비트 저장 회로 + 조합 회로〉네요. '조합 회로'가 '논리 함수'라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죠? 논리 함수가 '논리 상태의 변경'이라는 사실 역시 도요.

드디어 '조합 회로'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논리 상태의 변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 회로는 출력 B를 다시 '입력'으로 받고, 외부 입력 C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후 '논리 함수'를 통해 '논리 상태를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저장 회로에 '입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 천천히 이해해보면 됩니다.

B와 C의 입력이 같으면 1을 출력하고, 다르면 0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이때 B에서 1이 출력되고, C에 1이 입력된다면 '두 입력이 같으므로' 조합 회로는 최종적으로 1을 출력할 것입니다. 이 1은 '저장 회로'에 입력되겠죠?

이때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면 B에 출력되는 값이 0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문장도 아주 어렵네요. 하지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1비트 저장 회로'의 메커니즘이 떠오르게 됩니다.

1 → S_1 → 인버터(1) → 0(B로 출력되는 값) → 인버터(2) → S_2 → 1 → 인버터(1) → 0 → 인버터(2) → S_2 → 1 …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입력되자마자 S_1은 닫히고 S_2가 열리면, '1비트 저장 회로' 설명의 첫 단계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다시 S_2가 닫히고 S_1이 열리는 것은 이진수가 1비트 저장 회로 속에 갇혀 시간적으로 유지 즉, '저장'되는 과정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1비트 저장 회로'를 작동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B의 출력이 1에서 0으로 바뀌었으므로 '조합 회로'를 통해 '논리 상태의 변환'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던 '논리 상태의 변환'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길고 어렵지만, '논리 상태의 변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준 것일 뿐이죠. 시험장에서 정 이해가 어려웠다면, '조합 회로를 통해 논리 상태가 변경되는 걸 설명한 거구나!'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설명도 계속해서 이해해봅시다. C의 값을 0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B에 출력되는 값도 0이고, C의 값도 0이므로 이전과 똑같이 조합 회로에서 출력되는 값은 1입니다. '조합 회로의 출력값 = 저장 회로의 입력값'과 같은데, 이미 저장 회로에 입력되는 값은 1이므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B의 출력(0)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C에 다시 1을 입력하게 되면 B의 출력(0)과 C의 입력(1)이 달라지게 되므로 조합 회로의 출력은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B와 C가 다르니까요. 이 경우 저장 회로에서 전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B의 출력이 0에서 1로 바뀐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C에 주는 외부 입력을 통해 '저장 회로에 저장되는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저장 회로에 어떤 값을 저장하여, B로 계속 출력할지에 대해 C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해설을 쭉 따라 읽으면서 하나하나 적용해보시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가며 천천히 작동을 이해해봅시다.

기존 B의 출력값	C의 입력값	조합 회로의 출력값 = 저장 회로의 입력 값	새로운 B의 출력값
0	0	1	0
0	1	0	1
1	1	1	0
1	0	0	1

하이라이트 문장

> 그렇다면 논리 상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계속해서 어려운 예시가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논리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지금 논리 상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 만일 이 회로에 2개의 1비트 저장 회로를 병렬로 두어 출력을 2비트로 확장하면 00~11의 4가지 논리 상태 중 1개를 출력할 수 있다. 조합 회로의 외부 입력도 2비트로 확장하면 조합 회로는 저장 회로의 현재 출력과 합친 4비트를 입력받게 된다. 이를 내장된 논리 함수에 의해 다시 2비트 출력을 만들어 저장 회로의 입력과 연결한다. 이와 같이 2비트로 확장된 순차 논리 회로에서 외부 입력을 주고 스위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면, 저장 회로의 출력은 2배로 늘어난 논리 상태 중 하나로 바뀐다.

저장 회로가 늘어나면 표현할 수 있는 논리 상태의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네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합 회로의 외부 입력'도 2비트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합 회로'는 4비트(저장 회로 2개 + 조합 회로의 외부 입력 2개)를 입력 받겠죠? 이 입력값들이 조합 회로를 지나면 2개로 바뀌어 출력될 것입니다. 2개씩 묶어서 같으면 1, 다르면 0을 출력할 테니까요. 이 값이 다시 '1비트 저장 회로'의 입력값으로 들어갈 거고, 일련의 스위치 과정(저장 과정)을 거쳐 B에서 출력되겠죠? 이 문단은 그저 '논리 상태가 늘어나더라도' 앞에서 설명했던 과정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1문단의 마지막 부분, 2문단의 마지막 부분의 설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 이 회로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입력을 바꾸고 스위치 동작 신호를 주면, 주어지는 외부 입력에 따라 특정한 논리 상태가 순차적으로 출력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회로가 N비트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가 CPU이며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신호가 CPU 클록이다. 회로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코드'가 된다. 명령 코드를 CPU의 외부 입력으로 주고 클록 신호를 주면 CPU의 현재 논리 상태는 특정 논리 상태로 바뀐다. 이때 출력에 연결된 회로가 바뀐 상태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CPU 클록은 CPU의 상태 변경 속도, 즉 CPU의 처리 속도를 결정한다.

외부 입력을 바꾸고 스위치 동작 신호를 준다는 것은 3문단에 설명된 '순차 논리 회로'의 일련의 작동 과정을 의미합니다. C에 입력되는 값을 바꾸어 조합 회로의 출력값을 변화시키고, 이게 '1비트 저장 회로'에 저장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죠. '스위치 동작'이 뭐지? 하실 수 있지만, 3문단의 설명을 통해서 '입력 값을 인버터를 통해 변화시켜 B의 출력값을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스위치 동작이 '저장'이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회로가 N비트가 되면 수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CPU 클록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네요. 하지만 그 정의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 동작 신호'일 뿐이에요. 한편, '명령 코드'라는 정보도 새롭게 등장하는데, 역시 그 정의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저 '회로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 즉, C의 입력일 뿐입니다.

이 두 개념을 합쳐서 문장을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명령 코드'를 외부 입력하고, '클록 신호'를 준다는 것은 C의 입력을 바꾸고 '스위치 동작'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네요. 이 문단의 첫 문장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CPU는 이러한 방식으로 논리 상태를 변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작업을 완료합니다. CPU 클록이 CPU 처리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 역시 당연하죠? 스위치 동작이 빠르게 일어나야 저장도 하고, 저장된 값을 출력도 할 테니까요!

뭔가 정보량이 많은 문단 같지만,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새롭다고 인식해줘야 하는 정보는 'CPU 클록이 CPU의 처리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밖에 없군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 명령 코드를 CPU의 외부 입력으로 주고 클록 신호를 주면 CPU의 현재 논리 상태는 특정 논리 상태로 바뀐다.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이 재진술이라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정보의 늪에 푹 빠질 뿐이에요. '명령 코드'와 '클록 신호'의 정의를 통해 재진술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해봅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CPU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그에 해당하는 논리 상태는 정해져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나의 논리 상태는 하나의 기능과 일대일 대응되어 있지?
[해설] CPU가 수행하는 기능은 CPU의 논리 상태와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려면 논리 상태를 바꿔야 하는 거고, 표현할 수 있는 논리 상태가 많을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② 인버터는 입력되는 2진수 논리 값과 반대되는 값을 출력하는 논리 소자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버터는 0을 1로 바꿔줬던 거니까 맞네.
[해설] 인버터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2진수 논리 값은 0 or 1인데, 인버터의 정의에 따르면 인버터는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논리 소자이므로 적절한 선지네요.

③ 순차 논리 회로에서 저장 회로의 출력은 조합 회로의 출력상태와 동일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장 회로가 출력하는 건 조합 회로가 출력하는 거랑 반대인데?
[해설] 저장 회로의 출력은 '인버터'의 작용에 의해 입력값과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장 회로에 입력되는 값은 '조합 회로의 출력값'과 같죠? 따라서 저장 회로의 출력은 조합 회로의 출력상태와 항상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④ CPU는 프로그램 명령 코드에 의한 논리 상태 변경을 통해 작업을 수행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명령 코드가 바뀌면 저장 회로가 출력하는 논리 상태도 바뀌지!
[해설] '명령 코드'는 외부에서 C로 입력하는 값입니다. C의 입력값이 바뀌면 B가 유지되더라도 조합 회로의 기능에 의해 조합 회로가 출력하는 값이 바뀔 수 있고, 이 값이 바뀌면 저장 회로가 출력하는 값도 달라지므로 논리 상태가 변경됩니다. '저장 회로'의 기능에 의해 논리 상태 변경 상태가 유지되고요.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⑤ 조합 회로는 2진수 입력에 대해 내부에 구현된 논리 함수의 결과를 출력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조합 회로가 논리 함수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해설] 조합 회로의 정의를 묻는 선지입니다. 조합 회로에 입력되는 B와 C의 값에 대해 특정한 논리 함수의 기능을 바탕으로 변환 값을 내보내는 회로입니다. 애초에 '조합 회로 = 논리 함수의 기능'이라는 정의를 정확히 체크한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은 '1비트 저장 회로'의 피드백 회로를 말하고, ㉡은 '조합 회로'의 피드백 회로를 말합니다. ㉠은 하나의 논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고, ㉡은 조합 회로의 출력이 저장 회로의 입력으로, 저장 회로의 출력이 조합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통해 '논리 상태의 변환'을 설명하려고 등장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한 후 문제를 풀러 가야 해요!

① ㉠은 조합 회로를 통해서, ㉡은 인버터를 통해서 피드백 기능이 구현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조합 회로가 아니라 '1비트 저장 회로'이고, ㉡은 '조합 회로'인데?
[해설] 문제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② ㉠과 ㉡의 각 회로에서 피드백 기능을 위해 입력하는 정보의 개수는 같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하나이고, ㉡은 두 개지.
[해설] ㉠은 A로부터 혹은 조합 회로의 출력값으로부터 입력되므로 그 개수가 하나이고, ㉡은 저장 회로의 출력값과 외부 입력값 두 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두 개가 입력됩니다. 따라서 입력되는 정보의 개수는 같지 않습니다.

③ ㉠과 ㉡은 모두 외부에서 입력되는 논리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저장하는 건데?
[해설] 저장의 기능은 ㉠이 담당합니다. 이 역시 '외부에서 입력되는 논리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를 통해 반대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은 애초에 논리 상태를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외부에서 입력되는 논리 상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합 회로를 통해 특정한 논리 함수에 맞추어 '변환'할 뿐이죠.

④ ㉠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이며, ㉡은 논리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구조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각 피드백 회로의 정의 그 자체네.
[해설] ㉠은 '1비트 저장 회로'의 피드백 회로이니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이며, ㉡은 '조합 회로'의 피드백 회로이니 '논리 상태 변환'을 위한 구조입니다. 각 피드백 회로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하면서 독해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⑤ ㉠은 스위치 S_1이 연결될 때, ㉡은 스위치 S_2가 연결될 때 피드백 기능이 동작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S_1과 S_2는 ㉠ 부분인데?
[해설] S_1과 S_2는 '1비트 저장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에 해당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은 스위치 S_1이 연결된 후 S_2가 닫히고 다시 S_1이 열리면서 동작하고, ㉡ 역시 이 과정이 모두 동작해야 저장 회로의 출력이 다시 조합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에서 N을 증가시켰을 때의 변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N을 증가시켰다는 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후 선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N을 증가시키면 CPU가 가질 수 있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늘어나고, 이는 CPU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수를 늘려줍니다. 즉, CPU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 코드의 종류가 증가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명령 코드는 외부 입력이지? 비트가 증가하면 외부 입력할 수 있는 거도 많아지겠네.
[해설] N을 증가시키면 '1비트 저장 회로'의 출력도 N개가 되고, 이에 맞춰서 조합 회로에 입력되는 외부 입력(C)의 개수도 N개가 됩니다. 그런데 '명령 코드'의 정의가 '외부 입력'이므로 적절한 선지네요.

② 조합 회로가 출력하는 논리 상태의 가짓수가 증가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N이 늘어나는 만큼 논리 상태도 증가하지!
[해설] 조합 회로가 출력하는 논리 상태는 그대로 저장 회로에 저장됩니다. '1비트 저장 회로'가 저장하고 출력하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N과 같으니, 조합 회로가 출력하는 논리 상태 역시 N개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네요.

③ CPU가 가질 수 있는 논리 상태의 가짓수가 증가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장되는 게 많으니까!
[해설] CPU가 가질 수 있는 논리 상태의 가짓수는 '1비트 저장 회로'에 저장되는 2진수와 같습니다. N이 증가하면 그만큼 저장되는 논리 상태도 많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④ CPU에서 진행되는 상태 변경의 속도가 증가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태 변경의 속도는 CPU 클록이 결정하는데?
[해설] 상태 변경의 속도는 CPU 클록 즉,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신호가 결정합니다. N이 증가한다고 해서 스위치 동작 신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상태 변경 속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⑤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증가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N이 늘어나면 논리 상태가 늘어나니까!
[해설] N이 늘어나면 CPU가 가질 수 있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논리 상태는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일대일로 대응하므로 논리 상태의 개수가 늘어나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작업도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처리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기술 지문에서는 반복되는 정의가 나올 때 앞부분에 제시된 개념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의를 활용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문장이 정보로만 남게 됩니다.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기술의 목적 : 항상 기술 지문을 독해할 때는 '기술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예시, 인과관계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읽고 있는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떠올린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주차 [4~6]
2014LEET [8~10] 인문 '쾌락주의' ☆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쾌락주의'에 대한 지문입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아요. '쾌락/주의'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쾌락'을 가장 중요시하는 윤리설이에요.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모든 것은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된다는 것은 앞에 제시된 정의의 재진술이죠? 가볍게 같은 말로 잡고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이 정의에 추가적으로 '고대'의 '에피쿠로스'에서 '근대'의 '벤담과 밀'로 '변화'한 양상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핵심은 '개인'에서 '사회 전체' 단위로 '쾌락'의 주체가 변했다는 것이죠? '개인'이니까 '이기적' 쾌락주의로 불릴 것이고, '사회 전체'이니까 '공리주의'와 연결되는 것이네요. '공리주의'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어의 의미와 정의를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쾌락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쾌락주의'는 단기적,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쾌락주의는 '방탕한 삶'과는 다르다고 해요. 이때 '방탕한 삶'의 정의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정의된 것은 자연스럽게 체크할 수 있겠죠? 본인이 정의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튼,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장기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시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있네요.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들은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요. '장기적 쾌락'을 위해 그 순간의 쾌락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자'였던 거예요.

새끼 문제 해설

Q1. 2문단 마지막 문장의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를 다른 말로 바꿔 보자.

모범 답안 : 단기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사례-원리 연결'의 과정에서 이미 끝냈어야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사회적 성취라는 '장기적 쾌락'을 위해서 쾌락이 아닌 '고통'도 감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애초에 이 사례는 '쾌락주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쾌락'을 최고로 치는 쾌락주의에서 '쾌락'을 포기하고 취하는 건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지문 해설로도, 새끼 문제로도, 하이라이트 문장으로도 세 번 강조했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와 붙여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라고 준 사례니까요.

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화제를 구체화시켜주셔야 해요. 단순히 '쾌락주의'에 대한 지문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받는 오해에 대한 해명'에 대한 지문으로 말이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지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제대로 글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쾌락주의는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 '고통'까지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진 상황을 또 '사례'로 들며 이를 완벽히 이해시키고 있죠? 불구덩이에 빠져 느낀 '고통'은 큰 부상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그 '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쾌락주의'의 대전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내용을 거스르는 게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가진 채로 읽어보니,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죠. 쾌락주의는 '쾌락'이 '목적'이기에, '고통' 같은 것들은 추후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입장입니다. '쾌락'이 목적이라는 것은 지문의 화제이자, 핵심 개념의 정의로부터 얻은 대전제입니다. 이런 문장을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고통'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쾌락'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중심 개념의 정의로부터 얻은 대전제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합시다. 지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테니까요.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지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쾌락주의'는 이처럼 '고통'이라는, '쾌락'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앞 문단과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도 사례를 들어주고 있죠? '금욕주의자'처럼 고통을 추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모두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쾌락주의'는 '장기적인 쾌락'을 최우선시한다! 머릿속에 이 말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이렇게 '쾌락주의'가 받고 있는 오해는 해소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읽게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쾌락주의에 대한 비판점'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쾌락의 정의'와 '쾌락의 계산'이라고 해요. 일종의 '카테고리'를 제시해 준 것이니, 이제부터 나오는 정보들은 이 내용에 맞춰서 정리해주셔야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물음의 형식을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죠? 핵심은, 이를 '쾌락의 정의'와 연결지어 생각해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쾌락'을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냐는 것이 이 물음의 핵심이니까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매끄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독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쾌락주의자인 '벤담'은 이 물음에 '모두 같다'라고 답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이 대답은 '비쾌락주의자'들로부터 '돼지'와 '인간'을 동일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죠?

생각 심화
돼지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것은 근대 서양 철학에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철학은 철저히 '인간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돼지 같은 저급한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밀'이 나와 '고급 쾌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네요. 이 '고급 쾌락'이 바로 '쾌락의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물론 '고급 쾌락'의 정의가 '이질적인 쾌락을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쾌락'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있겠죠?

그런데 '밀'은 '후대의 쾌락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있으니, 미리 생각하면 제일 좋겠죠? '쾌락주의자'의 입장을 따져보면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쾌락주의자'는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은 '자유와 존엄성'과 같은 '쾌락'이 아닌 것에 '고급'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겠네요. 이와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보고 갈까요?

6.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

-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쾌락' 외의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찾아야 해요.

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건 쾌락주의가 아니지.
[해설]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는 건 '쾌락주의자'의 입장이 아니죠!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네.
[해설] 우리가 생각한 내용 그대로죠? 이게 답을 알고 한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쾌락주의'의 정의만 제대로 잡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걸 이해해주세요.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의 원천은 뭔 상관이야.
[해설] '쾌락'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것 자체는 '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양한 원천의 '쾌락'을 설명하는데 '쾌락' 이외에 다른 기준(자유, 존엄성)을 도입한 것이 문제이지, 다양한 원천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밀이 언제 이런 말을 했냐.
[해설] 3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밀'이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자유, 존엄성 기여)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것 자체가 비판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밀'이 비판받는 포인트는 '자유, 존엄성'이라는, '쾌락' 이외의 기준을 도입한 것이에요!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밀이 쾌락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지.
[해설] '밀'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라는 말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죠? '밀'의 주장이 아닌 걸 공격하고 있으니 적절한 비판으로 볼 수 없겠네요.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만 제대로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새끼 문제 해설

Q2. 지문에 제시된 내용 중, '고급 쾌락'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정답 :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

'고급 쾌락'의 정의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새끼 문제입니다. 지문에선 '고급 쾌락'을 '고급 쾌락'의 정의가 '이질적인 쾌락을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쾌락'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를 이용하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었던 물음,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밀'에 따르면 이 중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쾌락인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이 바로 '고급 쾌락'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중요 개념의 정의는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꼭 인식하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문제로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쾌락주의'의 정의를 바탕으로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쾌락주의'의 정의를 바탕으로 재진술되는 내용들을 잘 체크했다면, 왜 이런 비판을 받았는지 바로 납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4. 윗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②

- 사실상 이 지문의 내용일치 문제와 다를 게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쾌락주의'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만이 목적이지.
[해설] '고통'은 '도구'적 가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쾌락'이 아니니까요!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인데 가치가 왜 없어.
[해설] 단기적이든, 말초적이든 장기적이든 '쾌락'이면 무조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물론 '단기적, 말초적 쾌락'보다는 '장기적 쾌락'을 조금 더 중요시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쾌락'은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쾌락주의자'가 주장하는 바죠.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구적'으로는 가치 가질 수 있지.
[해설] '고통' 예시가 바로 떠오르면 되겠죠? 물론 이는 '도구적 가치'밖에 못 가지겠지만요.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 외에는 전부 도구적이지.
[해설] '금욕주의자'라는 정보가 왜 나왔는지,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네요. 이들도 결국 '쾌락'을 목적으로 하므로 '쾌락주의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쾌락주의자'의 주장 그 자체죠?

5.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보기>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제시할까요?

<보 기>

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사디스트'가 무엇인지 몰라도, 뒤에 나오는 '가학적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의 행위도 옳다고 보는 게 '쾌락주의'의 문제라는 게 <보기>의 입장입니다.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입장이기에, 사디스트가 얻는 쾌락과 다른 이들이 잃는 쾌락 등을 비교하는 방식의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찾아봅시다.

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른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행위의 동기가 무슨 상관이야.
[해설] 어떠한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건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닙니다! 절대 답이 될 수 없네요.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회 전체 이야기해야지.
[해설] '그 자신의 쾌락'은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이기적 쾌락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 전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발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해요!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른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해설] 가학적 행위 그 자체가 그르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선 '쾌락'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해요!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쾌락은 무조건 가치가 있다며.
[해설] 이 선지는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의 입장을 고르라는 발문을 고려했을 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사디스트가 얻는 '쾌락'도 어쨌든 '쾌락'이기에, '쾌락주의자' 입장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행위일 테니까요.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른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리주의적이네.
[해설] 사디스트 개인이 얻는 '쾌락'보다 '희생자'가 잃는 '쾌락', 즉 '고통'이 더 크다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선 '쾌락'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겠죠?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당연히 싫어하겠네요. 완벽한 정답 선지입니다.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례의 내용과 그 원리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④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주차 [7~10]

2017LEET [14~17] 사회(경제) '금융위기의 원인' ☆☆☆☆

이번 지문은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문들과 관련된 지식들을 얻기에 좋은 지문이에요. 이 지문의 내용은 배경지식처럼 알아두도록 합시다.

>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어도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금융위기가 여러 차원의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나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행 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시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시각에 기초해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문단은 길지만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이 지문의 전부예요. 총 네 가지가 나온다고 밝혔죠?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었는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 우선,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많은 예금주들이 예상하게 되면 실제로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지는 현상, 즉 **'자기실현적 예상'**이라 불리는 현상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준비제도**는 현대 은행 시스템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 제도에서는 은행의 지불능력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예금주들의 예상이 바뀌면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예금**은 만기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취약해져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사람이라면 남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은행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앞다투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

먼저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는 현상으로 금융위기를 살피는 관점입니다. 정의는 간단해요.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예상하면 진짜 취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상'에 따라가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부분준비제도'라는 것을 설명해주네요.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예금) 은행은 그 돈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및 대출 사업 등을 하는데, 그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맡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돈을 아무 문제없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정 비율의 돈은 쓰지 않고 '지급준비금'으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수능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소재이니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준비제도'에서는 은행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없어도, 즉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예금주들이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예상'하는 것만으로 예금 인출이 쇄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겠죠. 은행이 곧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일단 자기가 넣어둔 돈부터 찾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를 '만기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인 '예금'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즉, 특정 날짜까지 맡기는 게 아니라 (만기가 없고) 맡긴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선착순) 것이기에, 은행이 곧 망한다면 빠르게 돈을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감당하려는 은행은 당연히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다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죠! 결국 예금주들의 예상에 맞추려다가 그 예상이 정말로 실현되는 결과가 '금융위기'를 낳았다는 것이네요!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화제는 놓치면 안 돼요!

> 둘째,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존재이고 통상적으로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보다 더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커지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수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주식회사 형태를 띤다.

다음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살피는 관점입니다. 이번엔 주식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음 문장에서 '따라서'를 바탕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앞 부분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보다 더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커지지만'은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과 같은 말이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이라는 말은 '유한책임'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네요! 즉, '자산 가치-부채액'이 곧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기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반면,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유한하게' 책임을 지면 되기에 회사가 망하는 건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주식회사'에 대해 중요한 성질 중 하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왜 비대칭적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는 결과적으로 그 회사와 회사의 채권자들(대표적으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기업 등이 있겠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어차피 잃을 확률이 높다면, 주주 입장에선 도박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금융위기'의 원인 아니었나요? 갑자기 '주식회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했더니, 마지막 문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즉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낮은' '주식회사' 형태를

띤다고 해요. 따라서 은행의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추구했고, 이것들이 실패하면서 전체적인 '금융위기'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네요.

> 셋째, **은행가의 은행 약탈**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과도한 위험 추구의 결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가들에 의한 은행 약탈의 결과로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과도한 위험 추구는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큰 행위를 은행가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은행 약탈**은 은행가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은행으로부터 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장기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행위 등은, 지배 주주나 고위 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가가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론 '은행가의 은행 약탈'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과도한 위험 추구'와는 다르게, 은행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은행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이죠. 예시로 들고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받는 대출',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 등을 이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약탈'로 인해 은행이 부실해졌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세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 넷째, **이상 과열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시각과 달리** 이 시각은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상승하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정 기간 하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은 부채의 증가를 낳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더 큰 상승을 낳는다. 이러한 상승작용으로 인해 거품이 커지는 과정은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게 되므로, 거품이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일어날 현실적 조건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은 '이상 과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시각과 달리,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한 시각이에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하락을 보고 그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거품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현재 경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예상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셋째와 넷째 관점은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첫째, 둘째 관점의 내용까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제가 일부러 내용 설명 위주로 해설을 작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지문 구조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럼 문제도 풀면서 이 지식을 공고화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7.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1%	13%	8%	24%	44%

① ㉠은 '부분준비제도'라는 제도가 가진 취약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자기 실현적 예상'을 하게 되는 예금주들의 행동이 핵심이 되었죠?

② ㉡은 '주주'들의 고위험 고수익 사업 추구 경향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은행의 경영자들이 예금주와 같은 '채권자'들의 이익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했으니 이러한 사업들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겠죠.

③ ㉢은 '은행가'라는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이해합니다.

④ 수능 수준에선 살짝 선을 넘는 선지죠? ㉣은 ㉠~㉢과는 달리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하여 금융위기를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것, '귀납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⑤ ㉠은 맞죠? '자기 실현적 예상' 자체가 경제 주체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니까요. 반면 ㉣은 경제 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예상이 '거품 발생'이라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예상은 '자산 가격 상승'이었는데, 실제론 거품이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예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각 관점을 잘 이해했다면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8.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8%	8%	12%	21%	51%

- ⓐ는 '따라서'라는 일종의 재진술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자산 가치-부채액'이 곧 '주주의 몫'이 된다는 것과 함께 은행이 망해도 주주의 손실은 자신의 투자액으로 '유한'하다는 것이었어요.

① '유한책임'에 대한 내용 그 자체죠?

② 역시 우리가 정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③ 주주의 책임은 '유한'합니다. 얼마나 많이 못 갚는지와 무관하게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④ 역시 맞는 말이죠? 물론 성공한다면 주주가 엄청난 이익을 보겠지

만, 회사가 이익을 보는 것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패한다면 주주와 달리 회사만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곧 '금융위기'를 낳았다는 게 ㉡의 핵심이었습니다.

⑤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선, '자산 가치-부채액'이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주의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이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니요. 이는 자신의 이익을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바로 정답이네요.

9.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9%	13%	12%	16%	50%

- 무언가 복잡해보이지만, <보기>에 나온 다양한 사실들을 ㉠~㉤과 연결하여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길다고 겁먹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197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저축대부업체들의 파산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대표적인 '거품'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나다를까 이를 본 많은 경제 주체들이 빚을 얻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이 이야기하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 한 술 더 떠 정부까지 '이상 과열' 현상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저축대부조합이 '고위험'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요. 화룡점정으로 저축대부조합들 다수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우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겠네요.

그런데 파산 직전, 대주주와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은행 약탈'까지 일어났겠어요.

사실상 ㉠을 제외한 모든 시각이 맞아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럼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애초에 ㉠은 이 <보기>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정도와 고위 경영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보상을 지급한 정도가 비례했다는 점을 들어'라는 건 <보기>에서 알 수도 없고, ㉠의 관점과 일치하지도 않죠.

② 이건 '이상 과열'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에서 강조하는 내용일 겁니다. ㉡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언급해야 해요.

③ '주식회사', '고위험채권' 등을 강조하는 건 ㉢이 아니라 ㉡일 것이고, 은행을 옹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여기선 은행을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 맞겠죠.

④ 역시 ㉡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를 용인한 건 '예금주'가 아니라 '경영주'들이겠죠? '예금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기만 한 거예요.

⑤ 여기 나오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투자 상황이 낙관적일 것이라고 '비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 이것이 저축대부조합의 줄파산으로 이어졌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을 비판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5%	48%	12%	8%	17%

①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예금주들이 섣불리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 '자기 실현적 예상'이 실현되지 않을 테니, ㉠에 따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특이하게 1번 선지에서 이야기한 '예금 보호 제도'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예금을 여기서 제외해버리면, 돈을 많이 맡긴 예금주들이 은행의 지불 능력이 낮다는 예상을 하는 순간 서둘러 인출하겠죠? 이 경우 ㉠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③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선호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서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건 ㉡에 따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은행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들의 금융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조한다면, '은행 약탈'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이는 ㉢에 따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⑤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줄이면,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럼 아무리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해도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질 것이니,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겠네요. ㉤에 따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주차 [11~15]

팀 WePi 자작문항 기술 '자율 주행 자동차' ☆☆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의 **깊이**를 알고 싶을 때 우물에 돌을 던진 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깊이를 알아낼 수 있다.〉 인간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로부터 특정 사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뜬금없이 '우물'에 대한 예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물의 '깊이'를 알고 싶을 때 돌을 던진 뒤 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된다고 해요. 이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우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했더니, 갑자기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이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안전한 주행을 위해 현재 위치로부터 특정 사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걸 측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원리, 즉 '우물'에 대한 원리를 이용할 수 있대요!

아 그럼 이 지문에 나온 '우물' 이야기는 결국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네요! 예시임을 인식했으니, 그 예시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와 집요하게 붙여서 '이해'해야겠습니다. '우물' 예시에서 결국 알고자 하는 것은 우물의 '깊이'였어요.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치로부터 특정 사물까지의 '거리'였구요! 이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물의 '깊이'를 알기 위해 '돌'을 던지듯이 자율 주행 자동차와 특정 사물의 '거리'를 알기 위해 무언가를 던지겠네요.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했다면 화제는 확실하게 잡힙니다. 이 지문은 이제부터 '자율 주행 자동차'가 특정 사물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고, 그 방법은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던지는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러 갈까요?

자율 주행 자동차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레이더(Radar) 센서**와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사용한다. 레이더 센서의 일종인 **펄스 레이더 센서**는 마이크로파와 같이 파장이 짧은 전파인 고주파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내보낸 후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센서에서 검출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이렇게 센서가 측정한 시간과 전파의 속력을 통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 과정에서 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가 변할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레이더 센서'와 '라이다 센서'라는 두 센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각각 '마이크로파/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은 자연스럽게 인식해주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화제인 '거리'에 대한 궁금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리'를 알아내는 것일까요?

먼저 '레이더 센서'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있네요. '펄스 레이더 선세'라는 것은 '마이크로파'와 같은 '고주파'를 내보내고, 이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센서에 검출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정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시고 다음 문장을 읽는데, 이렇게 측정한 시간과 속력을 이용하면 '거리'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심장이 두근두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거리 구하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우물'에 '돌'을 던져 '깊이'를 알아내는 원리와 똑같이, '물체'에 '고주파'를 던져 '거리'를 알아내는 것이네요! 이 내용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에 해당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측정 과정에서 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가 '변할'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아니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알아낸다는 원리를 잘 이해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하면서 읽어야겠죠?

도플러 효과란 전파를 비롯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물체가 관측자 기준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관측자가 측정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실제와 달라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정지해 있는 펄스 레이더 센서가 움직이는 물체에 마이크로파를 쏜다면 반사된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처음과 다르게 측정된다.〉 이를 통해 물체의 이동 방향·속도·센서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물체가 센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반사되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초깃값보다 크게 측정되며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 파장이 작게 측정되는 현상을 청색 편이, 크게 측정되는 현상을 적색 편이라고 한다.〉
-〉 물체-센서 거리 ↑ → 전자기파 파장 측정값 ↑ → 적색 편이
물체-센서 거리 ↓ → 전자기파 파장 측정값 ↓ → 청색 편이

갑자기 '도플러 효과'라는 개념이 소개됩니다. 당황스럽지만 일단 읽어보는데, 이 효과는 '물체'가 '관측자' 기준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발생한다고 해요! 잠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였죠? 그렇죠! '레이더 센서'의 측정 과정에서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변할' 때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도플러 효과'의 정의는 이 문제점과 정확히 대응되네요. '관측자'가 '센서'에 해당하고, 이 '관측자'와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가 곧 '변할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은근슬쩍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도플러 효과'와 같은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당연히 '펄스 레이더 센서'의 예시네요. 지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보의 역할'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도플러 효과'가 '펄스 레이더 센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니 '펄스 레이더 센서'와 관련된 예시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펄스 레이더 센서'는 정지해 있고, '물체'는 움직인다면 이들의 '거리'가 '변할' 것이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경우 '도플러 효과'에 의해 반사된 마이크로파의 '파장'이 다르게 측정되는 거네요. 우리의 생각에 방점을 찍어 주는 문장도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 물체의 이동 방향, 속도, '센서, 즉 관측자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대요! 역시 '도플러 효과'는 '거리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이와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가 제시되는데, 가볍게 메모해주시면 되겠죠? '청색/적색 편이'의 예시도 가볍게 정리할 수 있구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날 때 파장의 측정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로 '반대의 상황'과 같은 서술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 B형 '슈퍼문' 관련 지문 등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이니까요.

한편 **라이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송신부, 수신부,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되며, 적외선 레이저를 목표물에 조사함으로써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①송신부가 레이저 펄스를 물체에 조사하면 ②레이저 펄스는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고 ③수신부는 이를 검출한다. 〈이때 송신부는 레이저를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방출시킨다.〉 **데이터 처리부**는 센서가 송신한 레이저를 수신부가 검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알아낸 거리 정보를 통해 3D 지도를 만드는데,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한다. **라이다 센서**는 파장이 짧은 적외선을 이용하여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할 수 있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작기 때문이다.〉 **분해능**이란 인접한 두 개의 점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뜻한다. 적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으므로 라이다 센서는 레이더 센서보다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레이더 센서가 주변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메라**와 함께 활용해야 한다.
-〉 파장 ↓ → 분해능 ↓

지금까지 열심히 '레이더 센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으니, 이제는 '라이다 선세'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라이다 센서는 '송신부, 수신부,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되는데,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먼저 '라이다 센서'의 구성 요소가 제시되었으니 이 구성 요소들의 역할을 기준으로 정보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기술 지문 독해의 기본이니까요. 또한, '레이더 센서'와의 차이점 역할을 하고 있던 '적외선 레이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이크로파'를 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거리' 측정! 우리가 지금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라이다 센서'도 결국 '거리'를 구하게 해 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야 해요. '화제'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라이다 센서'의 작동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송신부'가 '적외선 레이저'를 쏘고,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시 처음에 나왔던 '우물' 예시와 똑같네요. 이런 생각은 자연스레 들겠죠? 아무튼 이때 송신부는 레이저를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방출시킨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의 궁금증, '아니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거지?'는 계속해서 가진 채로요!

조금만 더 읽어보니, '데이터 처리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는 송신된 레이저가 수신부에서 검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거리'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3D 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레이더 센서'와 똑같네요. 검출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이 한 번 더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다 센서'는 파장이 짧은 '적외선'을 쓰기에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적외선과 같이 파장이 짧으면 '분해능'이 작기 때문이래요. 일단 비례/증감 관계이니 메모하고 계속 읽어보니, '분해능'의 정의가 제시됩니다. '인접한 두 개의 점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니, 이게 작으면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 점이라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라이다 센서'는 '레이더 센서'보다 '물체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문장들이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잡혀야 해요. '라이다 센서'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은 적외선을 활용하기에 분해능이 작고, 따라서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데이터 처리부가 만드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아주 정확하다! 이 흐름이 잡히는 순간 이 문단의 많은 정보량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인식하면서 정보량을 줄여 가는 것, 지문 독해의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레이더 센서'가 주변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카메라'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카메라'는 왜 나온 거죠? 여기서도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카메라'라는 정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체의 형태 파악'을 돕는 기구! '레이더 센서'는 '라이다 센서'보다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므로, 물체의 형태 파악이 부정확할 겁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카메라'인 것이죠. 결국 또 똑같은 말이었네요. 여기까지 생각해주시면 이 문단을 완벽하게 뚫어낸 것입니다. 잘하고 있죠?

〈레이더 센서가 근거리와 원거리의 물체 모두를 감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라이다 센서는 근거리의 물체를 감지하기 어렵다. 또한 눈·비·안개 등의 악천후에서도 레이더 센서가 라이다 센서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야간에는 라이다 센서가 레이더 센서에 비해 더욱 월등한 성능을 보이므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자동차**는 두 센서를 모두 이용하기도 한다.

마지막까지 '레이더 센서'와 '라이다 센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감지', '악천후', '야간' 등의 기준을 통해 비교되고 있다는 걸 인식해주셔야 해요. 각 센서가 언제 유리한지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요! 어쨌든 이렇게 각 센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자율 주행 자동차'는 두 센서를 모두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불친절한 서술을 통해 맥락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많았지만, 결국 자율 주행 자동차의 '거리' 측정이라는 포인트와 각 센서 간 '비교 포인트' 인식만 제대로 해 주셨다면 생각보다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읽었는지 확인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1.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7%	11%	15%	24%	43%

① '레이더 센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정도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② '도플러 효과'의 역할을 정확하게 잡았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변할' 때 거리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였어요. 물론 이 선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걸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느냐, 아니면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생각했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지울 수 있느냐가 실력 차이라고 보셔야 해요. 단순히 문제를 맞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③ 역시 우리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각각 '마이크로파', '적외선 레이저'와 같은 '펄스'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 선지를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우지 못했다면 지문을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잘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요.

④ '라이다 센서'에서 '데이터 처리부'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부'는 '송신부'가 쏜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된 후 '수신부'에서 다시 검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송신부'가 레이저를 쏠 때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쏜다고 했으니 맞는 말이겠네요.

FAQ
Q : '데이터 처리부'가 만드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지문의 화제인 '거리'와 관련된 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4번 선지에선 '물체의 형태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A : 4문단의 흐름을 장악했다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파장이 짧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에 '분해능'이 작고, 따라서 '정확한 물체 형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4문단에서 이 이야기만 계속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 처리부'가 만드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당연히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게 해 주겠죠.

⑤ '레이더 센서'가 고주파를 사용하는 것도 맞고, '라이다 센서'에 비해 목표물의 정확한 형태를 표현하는 데 불리한 것은 맞는데, '짧은 파장'이요? 4문단의 똑같은 말들을 정리하면서, '라이다 센서'가 '레이더 센서'에 비해 물체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라이다 센서'가 사용하는 '적외선'의 파장이 더 짧기 때문이었죠? '물체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너무나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12.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2%	63%	6%	8%	11%

-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관측자'가 '우물'에 '돌'을 던져서 '깊이'를 알아내는 것은, '레이더 센서'가 '물체'에 '마이크로파'를 던져서 '거리'를 알아내는 것, 혹은 '라이다 센서'가 '물체'에 '적외선 레이저'를 던져서 '거리'를 알아내는 것과 완벽하게 대응되었죠? 이를 미리 생각할 수 있었어야하고, 생각했다면 답은 '레이더 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 - 마이크로파'거나 '라이다 센서와 물체 간의 거리 - 적외선 레이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카메라'의 역할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지문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다면 본인도 모르게 손이 갈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카메라'는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게 해 주는 것이지, '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② 우리가 찾던 내용 그 자체네요.

③ '레이더 센서'와 '적외선'은 좋은 한 쌍이 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④⑤ '라이다 센서'와 '마이크로파, 전파' 등도 좋은 한 쌍은 아니죠?

생각 심화
사실 '우물' 예시와 '자율 주행 자동차'가 100%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아요. 둘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물 : '돌'을 던지고 땅에 부딪혀서 들리는 '소리'가 관측자에게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통해 '깊이' 계산
자율 주행 자동차 : '펄스'를 던지고 물체에 부딪힌 뒤에 다시 센서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통해 '거리' 계산

즉, 우물에서 '돌'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소리'가 되어 반사되지만,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펄스'는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한 차이점까지도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 읽어낸 것이죠. 문제풀이와는 상관이 없지만, '사례-원리 연결'이라는 기본적인 독해 태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27%	6%	13%	7%	47%

- '레이더 센서'와 '라이다 센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비교 포인트를 활용할 거예요.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① '야간'과 '악천후'라는 말이 그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낚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야간'에는 '라이다 센서'가 훨씬 성능이 좋고, '악천후'에는 '레이더 센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야간이나 악천후에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틀린 말이죠. '야간'에는 '라이다 센서' 위주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며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② 자율 주행 자동차가 '레이더 센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해능'이 크게 나오고, 이에 따라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죠?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또한, 형태의 파악이 안 되어도 정상적인 주행은 가능하겠지만 분해능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인과관계는 항상 정확히 따져 주어야 합니다!

③ '라이다 센서'는 '인접한 두 개의 점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최소 거리', 즉 '분해능'이 작은 것도 맞고, '근거리'의 물체를 감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떤 상관이 있나요? '분해능'이 작은 것은 '물체의 형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줄 뿐이지,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게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처럼 각각은 맞는 말이라도 이들의 연결 고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④ 반대로 써 놓은 것이죠? '레이더 센서'의 파장이 '라이다 센서'의 파장보다 더 길고, 물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기에도 불리해요.

⑤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네요. 결국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도 이거죠? 자율 주행 자동차는 상황에 맞게 '레이더 센서'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사물과의 '거리' 혹은 해당 사물의 '형태'를 파악합니다! 답 선지가 쉽게 나왔지만, 1번 선지와 3번 선지에서 낚일 만한 요소가 존재해 실제 출제된다면 의외로 정답률은 낮게 나오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0%	6%	12%	59%	13%

- <보기>부터 정리해야겠죠? A가 '자율 주행 자동차'이고, B는 '물체'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이들이 정지하거나 움직인다는 내용을 보고 '도플러 효과'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도플러 효과'의 정의와 직결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걸 떠올리지 못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 잘 읽어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바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안개 낀 밤'입니다. 13번 문제의 1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안개'와 같은 '악천후'와 '밤'이라는 '야간'은 다른 범주의 정보임을 파악했어야 해요! 그럼 '안개'를 커버하기 위해 '레이더 센서'를, '밤'을 커버하기 위해 '라이다 센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② '라이다 센서'를 이용했는데 거리 측정에 실패했다면, '라이다 센서'의 단점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의 단점 중 하나는 '근거리 측정'이었죠? 쉽게 지울 수 있네요.

③ A와 B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펄스 레이더 센서'를 통해 측정한 '파장'의 값이 초깃값과 같다고 합니다! '파장'을 보자마자 바로 '도플러 효과'가 떠올라야 합니다. '도플러 효과'의 경우, '물체'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변할' 때 파장도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체'와 '센서'가 모두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거리가 변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겠죠.

④ 이번엔 A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청색 편이' 현상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청색 편이' 현상은 '물체'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파장의 측정값도 초깃값보다 작아지는 걸 말해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다면, B가 A보다 더 '빠르게' 왼쪽으로 움직였겠죠.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⑤ 4번 선지와 반대의 상황이죠?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파장'이 크게 측정된, 즉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입니다. 그럼 B는 A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계속 도망가야겠죠. 그래야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요.

생각 심화
3~5번 선지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도플러 효과'와 관련된 예시의 확장된 이해였습니다. 3문단의 '도플러 효과' 관련 예시에서는 센서가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를 다뤘는데, 사실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변할' 때는 아래의 세 케이스가 있어요.

1) 센서 정지 / 물체 이동 : 지문에 나온 예시와 같은 케이스죠.
2) 센서 이동 / 물체 정지 : 지문 및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센서 이동 / 물체 이동 : 3~5번 선지와 관련되죠? 둘 다 이동하는 경우, 3번 선지처럼 거리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4~5번 선지처럼 거리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에 제시된 상황 외에도 다른 상황까지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15.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0%	53%	8%	7%	22%

- '라이다 센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는 <보기>입니다. 다른 <보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엔 마치 다른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독해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라이다 센서'의 크기와 제작비용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늦추고 있고, 이는 '기계식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럼 '기계식 라이다 센서'가 되게 크고 비싼가보네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고정형 라이다 센서'인데, 얘는 360°의 시야각을 가지는 '기계식 라이다 센서'보다는 시야각이 작아 성능이 낮지만, (여기서 비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시야각'이 큰 건 '기계식'이에요!) 차량의 네 꼭짓점에 설치하면 '기계식 라이다 센서'에 필적하는 시야각, 즉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크게 어렵지 않네요. '고정형'이 '기계식'보다 더 싸고 성능은 낮지만, 네 꼭짓점에 모두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은색 부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검은색 부분'은 '시야각'이 아니라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X의 검은색 부분은 원 모양인데, Y의 검은색 부분은 각이 져 있는 모양이네요. '기계식 라이다 센서'는 360°의 시야각을 가진다고 했으니, 원 모양의 검은색 부분을 가진 X가 '기계식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이 진 검은색 부분을 가진 Y가 '고정형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Y의 경우에는 시야각이 작은, 즉 검은색 부분이 큰 '고정형 라이다 센서' 여러 개를 합쳐 X와 같은 '기계식 라이다 센서'에 필적하는 시야각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문을 독해하듯이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크기가 작은 것은 '고정형'을 사용하는 Y이고, 비싼 것은 '기계식'을 사용하는 X입니다. 그냥 틀린 말이네요.

② '기계식'은 360°의 시야각을 가지기에 하나만 써도 되지만, '고정형'은 그렇지 않아 네 꼭짓점에 모두 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X와 달리 Y는 여러 개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다는 건 맞는 말이네요!

③ X든 Y든 모두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기에, '근거리' 탐지에 약하다는 약점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달리'는 틀린 말이네요. 실제로 그림을 봐도, 감지하지 못하는 검은색 부분이 근거리에만 몰려 있죠?

④ Y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가 X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에 비해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죠? 여기선 '성능'이 곧 '시야각'이었는데, '시야각'은 '기계식'이 압도적이니까요.

⑤ 대충 읽으면 낚일 수도 있는 선지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선지에선 '수신부'와 '데이터 처리부'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수신부'는 '송신부'가 쏜 레이저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 처리부'는 그 검출 시간을 계산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3D 지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3D 지도는 '데이터 처리부'가 알아서 만드는 것이지, '수신부'로부터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서부터 '라이다 센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할을 정확히 잡았어야 하고, 선지에서도 묻는 것을 정확히 판단했어야 하는 선지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쉽게 지워냈을 것이라고 믿어요.

4주차 [16~18]

2021LEET [4~6] 인문 '고진의 풍경론' ☆☆☆

15세기 초 브루넬레스키가 제안한 **선원근법**은 서양의 풍경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풍경화의 원리를 재해석한 **'풍경론'**을 통해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문단의 관행을 비판했다.

'선원근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가 제안한 선원근법은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원근법의 정의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의를 재진술해주고 있어요. 결국 '선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미술 기법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말이네요. 이 부분을 보고 정확하게 '선원근법'이라는 개념이 뭔지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정의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서술 방식은 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인과 지문에서도 등장했죠? '표지'라는 개념을 재진술을 통해 파악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런 선원근법은 서양의 풍경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선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렸나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 고진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풍경화의 원리를 재해석한 '풍경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경론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선원근법을 재해석한 이론이겠네요. 그렇게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문단이 관행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특정 문학 사조'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선원근법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당시 선원근법이 풍경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고, 고진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선원근법에만 의존해서 풍경화를 그리는 그러한 경향을 비판했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감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것을 비판했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고진이 비판한 '특정 문학 사조'가 무엇인지 뒤에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은 꼭 해주셔야 해요. 그럼 특정 문학 사조(아마 선원근법에 따라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겠죠?)에 따라 풍경화를 그리는 관행을 비판한 고진의 '풍경론'에 대한 내용이 화제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문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러한 풍경화의 원리를 재해석한 **'풍경론'**을 통해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문단의 관행을 비판했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지문의 화제가 무엇일지 반드시 떠올려주셔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특이한 문장입니다. 해설에서도 언급했듯 기억해두면 좋은 문장이니 꼭 눈여겨 보고 넘어가세요!

> **고진**에 따르면,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내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풍경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대상이 된다.〉 '풍경'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해서가 아니라 **주관**에 의해 지각될 때 비로소 풍경이 된다.

고진의 풍경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바로 문단의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고진이 제시하는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입니다. 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고정된 시점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뭔가 선원근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그럼 뒤에서 재진술로 설명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니 고진이 제시하는 '풍경'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설명해줍니다.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 파악된다는 게 핵심이었네요. '내가 봄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 풍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재진술을 읽을 땐 결국 무엇에 대한 재진술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괄호 쳐 놓은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고진이 제시하는 '풍경'입니다. 그럼 그 정의와 연결해서 이해해야겠죠?

이것마저 모자랄까봐 한 번 더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풍경'이란 그 풍경을 보는 '주관'에 의해 지각될 때 비로소 풍경이 된다고 해요. 즉, 풍경은 객관적인 대상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인식함으로써, 주관에 의해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대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고진의 풍경론과 선원근법이 대비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선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법이었는데, 고진이 제시하는 풍경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닌 것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 **고진**에 따르면,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문단의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바로 고진의 풍경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점을 파악해주셔야 해요.

> 고진은 이러한 과정을 **'풍경의 발견'**이라 부르고, 이를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시켰다. 〈가령, 작가 구니키다 돗포의 소설에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이웃과 사귀지 않고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이나 이제는 만날 일이 없는 추억 속의 존재들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죽어갈 운명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면서, 주인공은 인간이란 누구든 다 친근한 존재들이라 말한다. 실제 이웃과의 관계 맺기를 기피한 채, 주인공은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살고 있다.〉 **고진**은 인간마저도 하나의 풍경으로 취급해 버리는 주인공으로부터, **전도(顚倒)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읽는다. 이로부터 고진은 "풍경은 오히려 외부를 보지 않는 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고진의 풍경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진은 이러한 과정을 '풍경의 발견'이라 부르고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풍경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시킨다는 것도 납득할 수 있어요. 결국 풍경론에서 강조하는 게 관찰자의 주관이니까, 풍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독한 내면'과 같은 주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돗포의 소설이라는 예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미술 얘기하다가 소설이 왜 나오지?' 싶으면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얘도 고진의 풍경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예시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 그 내용과 연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례-원리 연결'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는 꼭 익히셔야 해요!

그렇게 읽어보니 소설의 주인공이 핵심이네요. 외로움을 느끼지만 주변인과의 관계는 맺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나 만날 수 없는 추억의 인물을 회상하면서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영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딱 하나의 포인트만 쥐고 갑시다. 대상에게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영하는 것, 뭔가요? 주관에 의해 지각될 때 풍경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 풍경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소설의 예시가 풍경의 발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건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투영하고 세계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건 고독한 내면과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진은 이런 주인공으로부터 '전도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읽는다고 해요. '전도된 시선'은 결국 주관에 따라 대상을 지각하는 시선을 말하는 것이겠죠?(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내용은 뒤에서 생각 심화에서 함께 설명할게요) 그렇게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내적 인간이라고 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인용문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풍경은 오히려 외부를 보지 않는 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는 구절에서 '외부를 보지 않는 자'는 결국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대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풍경(객관적 대상)을 '지각'한다는 핵심을 강조하는 재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용구의 나왔을 때는 가볍게 흘려 읽지 말고 꼭 이 인용구의 핵심이 뭔지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 고진은 이러한 과정을 **'풍경의 발견'**이라 부르고, 이를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시켰다.

역시나 고진의 풍경론이라는 카테고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문장입니다. 화제와 직결되는 고진의 풍경론에 대한 내용을,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이라는 포인트랑 엮어서 설명하겠다는 걸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독한 내면이라는 점을 보고 '주관에 의한 지각'을 떠올려주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 고진의 풍경론은 한쪽에서는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을, 다른 한쪽에서는 대상의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문단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주관의 재현과 객관의 재현을 내세우기에 마치 상반된 듯 보이지만 사실 두 관점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은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본래적인 세계의 모습이라 믿는다. 풍경의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풍경의 밖에 서 있다고 믿는 것이다. 고진은 만일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 외부 세계의 모사(模寫)를 **리얼리즘**이라 부른다면 그것이 곧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고 말한다. 리얼리즘의 본질을 **'낯설게 하기'**에서 찾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견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너무 익숙해서 실은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견해를 따른다면, 리얼리즘은 항상 새로운 풍경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리얼리스트는 언제나 **'내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때까지 고진의 풍경론을 계속 설명해줬죠? 그런데 이 풍경론의 핵심은 '내면성, 자아' VS '사실적 묘사' 둘 중 하나만 강조하는 문단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됐다고 해요. 앞에서는 선원근법에 따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만 비판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면성이나 자아만을 강조하는 세태도 같이 비판했나봐요. 여기서 '대상의 사실적 묘사'를 보고 선원근법은 당연히 떠올려주셔야겠죠? 같은 말로 묶어줍시다. 아무튼 이 문단에서부터 풍경론을 화제와 직접적으로 엮을 텐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둘 중 하나만 내세울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네요.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풍경론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풍경)을 주관이 인식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계속 읽어보니 같은 핵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풍경에 익숙해지면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래적인 세계의 모습이라 믿게 된다고 해요. 대상의 사실적 묘사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진의 풍경론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그 풍경 또한 결국 주관의 지각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풍경은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이니까요! 이 핵심을 혹시나 캐치하지 못했을까봐 한 번 더 재진술해주네요. 풍경 안에 있으면서 풍경 밖에 있다고 믿는다!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진이 이런 의견을 비판합니다. 결국 풍경 밖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갖고 외부 세계의 모사를 강조한다면 이것 자체가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아야 한대요. 전도된 시선이 무엇이었나요? 주관적 시선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주관에 따라 인식한 풍경이겠네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해요. 자세한 건 생각 심화에서 다룰게요.

아무튼 거기에 러시아 형식주의도 끌고 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낯설게 하기'가 리얼리즘의 본질이라면 항상 새로운 풍경을 창출해야 합니다. 낯설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언제나 '내적 인간'일 수 밖에 없대요. 리얼리스트는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즉, 사실적 묘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얘네는 항상 전도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을 내세우게 되면 풍경 안에 있으면서 풍경 밖에 있다고 믿게 되고 이는 결국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심화

사실 이 문단은 정말 잘 읽어야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문단입니다. '전도된 시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주관적으로 풍경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도된 시선'이라는 개념이 착각이라는 점까지는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풍경 안에 있으면서 풍경 밖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는 말은 곧 주관에 따라 지각된 풍경을 객관적인 대상인 줄 안다는 뜻이에요.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 ~ 본래적인 세계의 모습이라 믿는다'라는 구절에서 선원근법과 같은 사실적 묘사를 비판한다는 건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이런 믿음에서 나온 외부 세계의 모사는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실적 묘사는 '전도된 시선'에 불과하다는 맥락입니다. 글의 흐름을 보면 계속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적 묘사만 강조하는 입장은, 결국 주관에 따라 지각된 풍경을 객관적 대상을 파악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러시아 형식주의의 내용도 파악해봅시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너무 익숙해서 실은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익숙해서'라는 말은 곧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즉,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이 '너무 익숙해서 보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러시아 형식주의인 거예요. 결국은 전도된 시선에 따라 풍경을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형식주의에 따르더라도 리얼리스트는 언제나 내적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리얼리스트는 사실주의자들이고, 그런 사실주의자들은 대상의 객관적 묘사를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이러나 저러나 전도된 시선에 따라 풍경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객관적 묘사만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게 고진의 풍경론이었죠? 화제 그 자체이기도 하잖아요. 화제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는 태도는 기본입니다! 결국 심화적인 이해이긴 하지만 출발이 되는 태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일관된 생각의 힘! 꼭 기억합시다.

참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내면성, 자아' VS '사실적 묘사' 둘 중 하나만 강조하는 세태를 비판한다고 했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비판의 포커스는 사실적 묘사에 맞춰져있다는 점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고진의 풍경론은 한쪽에서는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을, 다른 한쪽에서는 대상의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문단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화제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입니다. 고진의 풍경론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까먹었다면 이 문장을 읽고 바로 잡아주셔야 해요.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문단의 관행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게 고진의 풍경론이었죠? 여기서는 내면성이나 자아만을 강조하거나 대상의 사실적 묘사만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한다고 말해주네요!

물론 자신이 풍경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작가 나쓰메 소세키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이 참고해 온 문학책들이 자신의 통념을 만들고 강화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책들을 전부 가방에 넣어 버렸다. "문학 서적을 읽고 문학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진은 소세키야말로 자신이 풍경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이라 본다. 일단 고정된 시점이 생기면 그에 포착된 모든 것은 좌표에 따라 배치되며 이윽고 객관적 세계의 형상을

취한다. 이 세계를 의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고정된 시점 자체에 질문을 던지며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풍경 속의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역시나 고진의 풍경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풍경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는 전도된 시선에서 탈피한 사람이겠죠? 고진은 전도된 시선에 따라 사실적 묘사만 강조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풍경 안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고진의 풍경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풍경이 자각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걸 파악한 사람이겠죠? 고진의 풍경론과 비슷한 말임을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풍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의 예시로 나쓰메 소세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읽었던 문학책들이, 자신의 통념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책들을 가방에 넣어버렸대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문학책들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그런지 읽어봤더니 이해하기 힘든 인용구가 또 등장합니다. '피를 피로 씻는다'는 말은 결국 피를 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지, 책을 봐도 답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화제와 연결해서 재진술해주고 있는데, 고진은 나쓰메 소세키 같은 사람들이 풍경에 갇혀 있음을 자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념을 강화하는 행위를 지양하는 태도가 전도된 시선에서 탈피하는 것과 같다는 점만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계속 볼게요. 고정된 시점이 생기면 그 시점에 따라 포착된 것이 배치되고 객관적 세계의 형상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의심하려면 시점 자체를 의심해야 한대요. 당연한 말입니다. 시점에 따라 세계가 배치되니까, 세계를 의심하려면 그 세계를 배치시킨 시점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풍경 속의 불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경 속의 불안'은 결국 전도된 시선에서 탈피하여,자신이 풍경 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고정된 시점에 머무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객관적 세계', '고정된 시점'과 같이 '풍경론'이라는 화제와 자칫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법한 내용들을 키워드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이에요. 나름의 재진술로도 볼 수 있죠? 아무튼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고진의 풍경론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묶어줄 수 있어야 해요.

생각 심화

결국 중요한 태도는 이 내용이 등장한 맥락이 무엇인지 생각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 시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결국에는 주관입니다. 고정된 시점에 따라 대상들이 배치되고 객관적 세계의 형상을 취한다고 하니까요. 주관에 의해 지각되는 풍경, 주관에 의해 배열된 세계 전부 같은 말이에요. 즉 관찰자(주관)에 따라 풍경(세계)가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고정된 시점'에 따른 '객관적 세계'의 형상을 세계의 본질이라고 믿게 되면 결국 전도된 시선에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진의 풍경론에서는 풍경이란 주관에 의해 지각될 때 존재하거든요!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정된 시점 자체를 회의해야 하는 겁니다. 고정된 시점에 따라 배열된 세계를 진짜라고 믿게 되면 주관에 따라 배열된 세계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새끼 문제 해설

Q1. 책들을 가방에 넣어버린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전도된 시선에서 탈피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해설하자면, 문학책을 통해 자신의 통념이 강화되는 것은 고정된 시점으로 형성된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즉 풍경 속의 불안과 거리가 먼 행위이죠. 문학책의 내용은 자신의 통념을 강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문학책을 통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통념(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답을 추구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문학책을 통해 얻어낸 통념으로 알게 된 '문학'은 마치 '고정된 시점'에 따라 형상화된 '객관적 세계'와 같습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전도된 시선에 따라 문학을 이해하게 될 뿐이죠. 풍경론에 맞춰서 다시 말하자면, 전도된 시선에 따라 풍경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고진의 풍경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통념, 나의 주관, 그리고 내 주관에 따라 형상화된 문학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가 문학책을 가방에 넣어버리는 행위로 드러났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선원근법에 의존하지 않는 풍경화**, 예컨대 서양의 풍경화가 아닌 **동양의 산수화**를 고려한다면 고진의 풍경론은 달리 해석될까. 기하학적 투시도법을 따르지 않은 **산수화**에는 그야말로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재현된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산수화의 소나무조차도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소나무라는 관념을 묘사한 것이지 특정 시공간에 실재하는 소나무가 아니다. 요컨대 질문을 던지며 회의한들 그 외의 방식으로는 세계와 대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불안이 생기는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전도된 시선을 의심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전도된 시선의 기만적 구도**는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 의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이 미묘한 앞뒷면을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가 없다면, 우리는 풍경의 발견이라는 상황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단지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만을 쓰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는 선원근법으로 그린 서양의 풍경화를 중심으로 고진의 풍경론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동양의 산수화를 중심으로 풍경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잡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뒷 문장은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동양의 산수화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을 따르지 않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재현된 것처럼 느껴진대요. 즉, 선원근법과 같이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주관이 지각한 풍경을 담아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풍경을, 주관이 지각한 대로 잘 그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는 '본래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와는 다른 말이에요!

아무튼 이 핵심을 끌고 읽으면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소나무라는 관념을 묘사한 것'이라는 부분도 깔끔하게 이해가 되네요. 결국에는 주관에 의해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지 '실재하는 소나무'를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도 잘못됐다고 하고, 주관에 따라 그려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결국 둘 다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죠? 화제 기억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또 핵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풍경 속의 불안' 기억나시죠? 우리는 '전도된 시선의 기만적 구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하고 회의를 해야 합니다. 불안하더라도요. 풍경론의 핵심 기억나시죠?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풍경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관과 객관적 묘사 둘 중 하나로만은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풍경론의 핵심을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지문이 마무리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주관이 자각할 때 비로소 풍경이 존재한다. 결국은 풍경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객관과 주관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의 눈'이라는 건 결국 전도된 시선과 다르지 않겠죠?

새끼 문제 해설

Q2. 풍경론 등장 맥락을 바탕으로 산수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보자.

풍경론이 등장한 맥락이 무엇이었나요? 자아나 사실적 묘사 둘 중 하나만 강조하는 문단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서양의 풍경화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점에서 객관의 재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양의 산수화는 화가의 관념을 그린 그림이에요. 즉, 화가의 '내면성'이나 '자아'를 재현한 그림입니다. 그것만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공간에 실재하는 소나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재진술로 붙은 거고요. 그럼 풍경론의 관점에서 보면 동양의 산수화 또한 주관의 재현에만 매몰되어 진정한 풍경을 담은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역시나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을 내세우면서 서양의 풍경화와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풍경론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동양의 산수화 또한 풍경론이 비판하는 문단 세태 중 하나였던 거예요. 서양의 풍경화와 차이점을 잡는 동시에 화제를 바탕으로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Q3. '미묘한 앞뒷면'과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묘한 앞뒷면'이라는 키워드는 풍경론의 핵심을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객관의 재현과 주관의 재현이 얽혀있는 것! 둘 중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묘한 앞뒷면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는 말이 등장한 겁니다. 반면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은 풍경의 앞뒷면을 동시에 살피는 것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맥락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미묘한 앞뒷면'을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가 '없다면',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만을 쓰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얘는 결국 통념에 따른 문학, 전도된 시선에 따라 보는 풍경(or 문학), 객관이나 주관 둘 중 하나만 강조한 그런 문학이 되겠습니다.

16.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 고진의 풍경론을 중심으로 생각합시다. 객관과 주관 둘 다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죠?

① 브루넬레스키의 선원근법은 풍경화에 사실감을 부여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니까 사실감을 부여하겠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원근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선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이 선원근법이었죠? 그럼 당연히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②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익숙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낯설게 하기! 지문 그대로 물어보네.
[해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낯설게 하기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강조했습니다.

③ 산수화와 풍경화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대상의 재현 양상이 대비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풍경화는 있는 그대로 선원근법으로 그린 거고, 산수화는 관념을 재현한 거지?
[해설] 풍경화와 산수화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둘의 차이점에 주목했죠? 풍경화는 객관을, 산수화는 주관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즉, 풍경화는 선원근법이라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고 산수화는 화가의 관념을 재현했죠. 기하학적 투시도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④ 나쓰메 소세키는 문학 서적을 통해서 문학을 연구하는 작업이 자기 반복이라고 보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학책들은 통념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자기 반복이지.
[해설] 역시나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나쓰메 소세키는 자기가 참고한 문학 책들이 자신의 통념을 만들고 강화했다고 여겼으며 그 때문에 책들을 가방에 넣었죠.

⑤ 구니키다 돗포는 공적 관계를 기피하고 사적 관계에 몰두하는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엥 모르는 사람한테 감정을 투영했다고 했는데? 사적 관계에 몰두하는 건 아니지.
[해설] 공적 관계를 기피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사적 관계에 몰두하는 건 아예 틀린 내용입니다. 돗포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기 주변의 이웃과 사귀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나 추억 속의 존재에 감정을 투영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주변인과 맺는 '사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주인공은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영했을 뿐, 타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타인과 주인공이 상호적으로 감정이든 뭐든 무엇인가를 주고 받아야 할 것이니까요. 일방적인 감정의 투영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7. '전도된 시선'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도된 시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역시나 지문을 읽으면서 꼭 파악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풍경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주관을 객관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세계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죠?

① 세계의 미묘한 앞뒷면을 동시에 살피는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묘한 앞뒷면을 살피는 건 전도된 시선에서 탈피하는 거지. 객관과 주관을 다 고려하는 거니까.
[해설] 새끼 문제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객관과 주관이 얽혀있으니까 둘 다 고려해야 한다는 풍경론의 핵심을 담아둔 단어가 '미묘한 앞뒷면'입니다. 그런데 전도된 시선은 무엇인가요? 풍경 속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세계의 본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도된 시선은 오히려 미묘한 앞뒷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경우로 봐야해요.

② 내면의 세계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풍경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외부자의 시선이 틀렸네.
[해설] 내면의 세계는 관찰자의 주관입니다. 이걸 외부자의 시선으로 발견하는 건 '전도된 시선'이 아니죠. 전도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주관으로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면의 세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맞겠네요.

③ 현실을 취사선택하여 비현실적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전도된 시선인데 비현실적 세계라고..?
[해설] 현실을 취사선택하는 것까지는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 풍경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 세계를 만든다는 말이 완전히 틀렸네요. 전도된 시선은 비현실적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본래적인 세계의 모습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주관으로 자각한 세계를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데 비현실적 세계라니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④ 실재로서 존재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는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눈에 보이는 걸 믿는데 왜 아무도 못 보는 거야...?
[해설] 실제로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풍경을 보는 게 저도된 시선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선원근법과 전도된 시선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랑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 친구가 보는 바다랑 내가 보는 바다는 다르지 않겠죠. 눈에 보이는 바다는 똑같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바다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믿는 게 전도된 시선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는 걸 전도된 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낯설게 하기 또한 '너무 익숙해서' 보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즉, '아무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하다는 건 결국 누구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뜻이겠죠?

⑤ 주관적 시각을 통해 구성된 세계를 객관적 현실이라 믿는 것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관적으로 배열된 세계를 본래 모습으로 착각하는 거니까 객관적 현실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랑 같네.
[해설] 지문 해설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풍경 속에 있으면서 풍경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주관적으로 배열된 세계를 그 세계의 본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전도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바라본다는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18. 윗글에 따를 때 고진의 관점에서 〈보기〉에 나타난 최재서의 입장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보 기〉

최재서는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을 추구하는 이상의 소설을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에서 '리얼리즘의 심화'라고 비평한 바 있다. 이상의 「날개」에는 돈을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친구를 사귀지도 않으며 자신의 작은 방을 벗어나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최재서에 따르면, 자폐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 지내는 사내의 심리에 주목한 「날개」는 특정 대상의 내면까지도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대어 투명하게 조망한 사례이다. 대상에 따라 관점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문학 작품의 해석에 미리 확정된 관점이나 범주란 없다는 것이 최재서의 결론이다.

- 〈보기〉의 첫 문장을 읽고 풍경론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소설에 대한 최재서의 생각은 고진의 풍경론과 같습니다. 내면성과 자아 표현을 사실적 묘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 주관과 객관 모두를 중시하고 있네요. 그렇게 읽으니 친구를 사귀지 않는 등 지문의 '내적 인간'에 해당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아마 '전도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특정 대상의 내면까지 '주관의 막'을 제거하고 투명하게 들여다 본다고도 하네요? 즉, 자신의 주관으로 배열된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시점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상에 따라 관점이 이동할 수 있고 미리 확정된 관점이나 범주는 없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로 볼 수 있어요. 고정된 시점은 없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그럼 '풍경 속의 불안'까지 떠올려줄 수 있겠네요. 미술이 아니라 문학이 등장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화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도 문학으로 예시를 들기도 했으니까요.

① 대상에 따라 관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서양 풍경화의 방식으로 재현되는 것이라 해석되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양 풍경화는 사실적 묘사만 강조한 거잖아? 풍경론은 객관만 강조하는 서양의 풍경화를 비판했지.
[해설] 대상에 따라 관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기〉 해설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정된 시점이 없다는 것,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 풍경화'는 어떤가요? 자신의 주관으로 배열된 세계를 세계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는 태도였어요. 고진은 이걸 비판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양 풍경화의 방식'이 선원근법이라는 점을 떠올려서

이 선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선원근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방법이었고 이건 풍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이었죠. 풍경은 외부의 객관적 존재를 주관이 지각할 때 진정한 풍경으로 존재했으니까요.

② 작품 해석에서 미리 확정된 범주란 없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주관이 외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풍경 속의 불안을 벗어난 것이라 해석되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풍경 속의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해설] 확정된 범주가 없다는 의견은 오히려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확정된 범주가 없다는 말은 고정된 시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정된 시점을 의심하는 태도로 볼 수 있죠. 그렇게 고정된 시점을 의심하면 '풍경 속의 불안'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③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을 추구하는 작품도 리얼리즘에 속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풍경 안에 갇혀 있음을 자각한 것이라 해석되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면성, 자아 + 객관적 묘사이니까 풍경 안에 있음을 자각한 것이겠지. 둘 다 강조한 태도니까.
[해설] '내면성과 자아'. '리얼리즘'은 결국 주관과 객관을 모두 강조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고진은 이런 태도를 통해 자신의 고정된 시점을 의심하고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했죠. 풍경론의 핵심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사실상 첫 줄을 읽고 풍경론을 떠올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선지예요.

④ 「날개」가 대상의 내면에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주관의 재현과 객관의 재현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것이라 해석되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는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는 것이니 대립하는 게 아니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보기>를 읽으면서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부분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럼 객관이나 주관의 재현 둘 중 하나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시하는 태도라고 보아야겠죠.

⑤ 이상이 「날개」에서 자폐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 지내는 사내를 그렸다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풍경을 지각하지 못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그린 것이라 해석되겠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적 인간이긴 한데 '주관의 막'을 제거했다고 했으니까 내적 인간의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해설] 내적 인간은 원래 '전도된 시선'으로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주관의 막을 제거했다고 하면서, 고정된 시점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인물을 그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적 인간의 '전형'을 그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 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